

2014. 1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 MBC

2014년 1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대전문화방송

1. 회의개최

| 일 시 | 장 소 | 참석인원 수 | | 비 고 |
|------------|---------------|--------|-----|-----|
| | | 위 원 | 방송국 | |
| 2014.1.28. | 대전MBC 대회의실 | 7/10 | 6 | |

- 시청자위원 불참자 명단: 박희원, 장동환, 김형주 위원
-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 김창옥 사장, 김미리 경영기술국장, 김종찬 편성제작국장, 서주석 보도국장, 차태헌 방송기술센터장, 오승용 경영심의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 방송 편성 | 방송프로그램 | | | | | 자체 심의규정 | 합계 |
|----------|--------|----|----------------|----|----|------------|----|
| | 보도 | 교양 | 연예·오락 (스포츠) | 기타 | 소계 | | |
| - | 7 | 10 | - | 1 | 18 | - | 18 |

나. 사업자 반영(건수)

| 구 분 | 수 용 | 의견참고 | 반 론 | 계 |
|-----|-----|------|-----|----|
| 건 수 | 6 | 11 | 1 | 18 |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 구 분 |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 조치내용 | 제시 월 |
|-----|---------------------------------------|--------------------------------|------|
| 계 | 4건 | 4 건 | 12월 |
| 교양 | '허참 토크엔 조이' 배경음악, 화면과 어울리게 삽입 | '허참 토크엔 조이' 배경음악 화면과 어울리게 처리함. | 12월 |
| 교양 | 시사플러스 사후조치 보다 사전 문 제점 지적 대안 발견할 수 있도록 | 시사플러스 사전 취재 강화 프로그램에 반영 | 12월 |
| 보도 | 뉴스 보도시 어려운 용어(광특회계) 알기 쉽게 전달 | 뉴스 보도와 자막 처리 어려운 용어 알기 쉽게 전달 | 12월 |
| 교양 | 창사 50주년 특집다큐 기대 | 창사 50주년 기획 특집다큐 진행 순조롭게 진행 중 | 12월 |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 요 청 내 용 | 조 치 내 용 | 조치일자 | 비고 |
|---------|---------|------|----|
| | 해당사항 없음 | | |
| | | | |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 성 명 | 생년월일 | 전·현직 | 변동사유 |
|-----|------|---------|------|
| | | 해당사항 없음 | |
| | | | |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 요청자(단체) | 공개내용 | 공개방법 |
|---------|---------|------|
| | 해당사항 없음 | |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

| 구분 | 성명 | 전·현직 | 추천단체 | 추천부분 | 변동사유 |
|----|----|---------|------|------|------|
| | | 해당사항 없음 | | | |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 구 분 |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 답변내용 | 비 고 |
|-----|---|--|--------------------|
| 교양 | <p>TV특강 「마음으로 걷는 런웨이 - 모델 박들선」 편(1월 7일)이 방송되었다. 본 편에서는 2014 신년 특집으로 특별히 스튜디오가 아닌 분위기 있는 카페에서 멘토링 콘서트가 열렸다. 신년 첫 번째 게스트는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냉정과 열정이 공존하는 그녀 세계적인 슈퍼모델 박들선씨가 나와 모델로서의 삶에 대한 유쾌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진행을 하는 아나운서와 게스트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진행되었으며, 즐겁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본격적인 토크에서는 멘토링 콘서트에 걸맞게 모델이 되고 싶어 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 또는 모델로서의 자질과 소질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었으며, 학생들의 고민에 해결책으로 제안해 주기도 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목표와 실제생활, 다양한 에피소드와 같은 모델들의 이야기를 사례로 들어 흥미롭게 시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설 틈 없는 토크로 다소 지루하였으며 자료영상이나 사진자료를 첨가하여 이야기를 이끌어 나갔다면 더욱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오덕성).</p> | <p>이번 특강은 삼척MBC에서 제작한 것으로 제작 PD와 협의, 더욱 다양한 자료와 영상 준비로 알찬 내용으로 꾸며나가도록 노력하겠다.</p> | <p>편성 의견참고</p> |
| 교양 | <p>시사플러스에서 「길 잃은 도로명 주소 / 원도심 재생, 그 해법은?» 편(1/10)이 방송되었다. 이번 주 시사플러스는 새로 도입된 '도로명 주소'의 효용성과 '원도심 재생'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전시의 정책들의 평가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길 잃은 도로명 주소' 편은 기존 지번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를 전면 시행하게 됨에 따라 시민들</p> | <p>지난 100여 년 동안 사용된 지번 주소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도로명 주소. 2014년이 되면서 도로명 주소의 전면시행이 시작됐다. 4천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시행된 도로명 주소는 많은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다루었다.</p> | <p>편성 의견참고</p> |

| 구 분 |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 답변내용 | 비 고 |
|-----|---|--|------------|
| | <p>이 체감하는 불편함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관공서의 직원들과 시민, 택배회사 등의 인터뷰를 통하여 도로명 주소 이용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더 나아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제안하고자 하는 구성이 체계적으로 보였다.</p> <p>‘원도심 재생, 그 해법은?’ 편에서는 투자 비용 대비 큰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은행동 스카이 로드를 비판하고 원도심 재생을 위한 해법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지역 상인과 대전시 해당 부서 측, 도시재생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법을 설명해주어 다각적인 측면에서 주제를 다룰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와 함께 ‘관’과 ‘민간’이 협력하여 근대건축물을 중심으로 원도심을 재생하고자 한 타 도시의 사례를 비교해 줌으로써 시청자가 이해하기 한결 쉬울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본 편에서는 스튜디오의 아나운서 설명이 부족하게 느껴졌으며, 스튜디오와 관련 영상 및 인터뷰와의 연결이 구성적으로 부자연스럽게 보이는 문제는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오덕성)</p> | <p>‘원도심 재생’은 시사플러스가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는 대전시민들에게 중요한 의제이다.</p> <p>본 편의 아나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시청자들에게 쉽고 친근한 설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연결이 다소 부자연스러운 점은 개선하겠다.</p> | |
| 교양 | <p>건강플러스 「콩팥/소아·청소년 요통」 편(1/18)을 시청하였다. 건강한 오늘을 위한 건강플러스에서는 콩팥을 위한 맛있는 처방전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나와 소아·청소년들의 허리통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TV 주치의 시간으로 두 가지의 질병에 대한 예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건강한 음식과 식단을 위한 ‘맛있는 처방전’에서는 콩팥의 기능강화를 위한 음식과 조리방법을 전문요리사가 직접 조리하는 자료 영상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또, 조리학과 교수의 음식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도 들을</p> | <p>칭찬에 감사하다. 건강플러스는 ‘맛있는 처방전’과 ‘TV주치의’ 2코너로 구성되었다. ‘맛있는 처방전’은 약도 먹는 것도 하나라는 약식동원(藥食同原)관점에서 한의학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TV주치의’에서는 양의사들이 건강상담을 하고 있다. 조리시 유의사항은 조리가 끝난 후에 하는 것보다는 조리 전에 언급하는 효과적일 거라는 지적은 제작진과 상의하도록 하겠다.</p> | 편성 의견참고 |

| 구 분 |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 답변내용 | 비 고 |
|-----------|---|--|----------------|
| | <p>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조리 시 유의사항은 조리가 끝난 후에 설명해 주기 보다는 조리 전에 언급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건강백세 TV 주치의' 시간에는 신경외과 이종선 전문의가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소아·청소년들의 요통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질병이 발병할 수 있는 요인과 원인 그리고 예방법과 치료법에 대해서 자료화면과 영상을 통해 알기 쉽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주로 발생하는 병명을 언급하고 자료화면으로 정리하여 한눈에 이해할 수 있었다. 또, 시청자 의견을 듣고 궁금증을 해결 해주는 부분은 다른 시청자들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도움이 되었다(오덕성).</p> | | |
| <p>보도</p> | <p>시사광장(1/19)에서 충남도지사가 출연하였다. 2013년 충남행정을 점검하고 한편으로 도백의 리더십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국정과제는 정부 3.0 등의 용어처럼 이해하기 쉽지 않다. 반면 도정과제를 TV 프로그램에서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내포신도시에 대한 평가를 패널 중 경실련 사무국장에게 MC가 질문했는데 사무국장은 “이것은 넘어갈게요”하고 대답을 피했다. 시청자 입장에서 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피했는지 자못 궁금하다(김경숙).</p> | <p>MC 진행에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다.</p> | <p>보도 의견참고</p> |
| <p>교양</p> | <p>시사플러스에서 올해 대전 충남지역의 현안과 과제, 6.4 지방선거와 정당공천제를 둘러싼 논란(1/3), 원도심활성화 문제(1/10)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구성해 보기 좋았다. 한해를 시작하면서 전체를 조망해 볼 수 있게끔 이슈별로 구성을 해서 흥미롭게 시청하였다(김경숙).</p> | <p>시사플러스는 지역의제에 대한 문제제기 및 대안,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 그리고 권력에 대한 감시를 주안점으로 두었다. 2014년 새해 들어서 대전,충남,세종의 주요 현안 및 6.4 지방선거주요 변수를 둘러보았다. 흥미롭게 봐준</p> | <p>편성 수용</p> |

| 구 분 |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 답변내용 | 비 고 |
|-----|--|--|---------------------------|
| | | <p>점,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더욱 노력하겠다.</p> | |
| 기타 | <p>홈페이지를 보니 공지사항란에 2010년 시청 자위원 관련 글이 올라와 있는데 2010년이라는 몇 해전 공지사항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김경숙).</p> | <p>바로 삭제 처리하였다</p> | <p>경영 (전산) 수용</p> |
| 보도 | <p>시사광장(1/5)에서 염홍철 대전시장이 출연하여 2014년 행정의 이모저모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야당 시의회 의원, 목원대, 한남대 교수가 전문패널로 등장하였다. 전문패널들의 역할 중 하나가 아무래도 시청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짚어주는 것 일텐데 동일한 직업인 교수 2명이 출연하여 아쉬움을 준다. 1명 정도는 교수 보다는 대전시 기획위원회 관계자를 출연 시키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패널 선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김명수).</p> | <p>패널선정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겠다.</p> | <p>보도 의견참고</p> |
| 교양 | <p>시사플러스(1/10)에서 “길 잃은 도로명주소와 원도심 재생 그 해법은?” 크게 2개의 아이템을 다루고 있었다. 프로그램 도입부에서 당해 시사플러스 예고 PR을 제작해 방송을 하고 있다. 이날은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 예고 PR(인트로덕션)을 내 보냈다. 예고 PR이 끝나고 본 방송이 시작되면서 도로명주소와 관련 오프닝 멘트를 하였는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혼돈을 갖는다. 예고 PR을 당해 방송량 중 한 가지만 뽑아서 제작을 하다보니 이런 혼란을 가져온다고 본다. 예고 PR은 당일 방송될 소재 중 한 개가 아닌 전체를 다루는 것이 맞다고 본다(김명수).</p> | <p>시사플러스는 두 코너로 구성하고 있다. 첫 코너는 그 주의 핫이슈를 신속히, 그리고 뉴스보다 깊이있게 다루고자 하고, 두 번째 코너는 보다 제작시간을 투자하고 심층적으로 취재하여 대안제시까지 하려고 하고 있다. 두 번째 코너가 메인 아이템인 셈이다. 그래서 프롤로그(인트로덕션)는 두 번째 코너만 축약한 것이다. 제작진과 충분히 상의하여 검토하겠다.</p> | <p>편성 의견참고</p> |
| 교양 | <p>생방송 아침이 좋다(1/22)에 “현장속으로-설명절 오색빛깔 가래떡”에 공주시 우성면의 떡 만드는 마을을 소개하였다. 만드는</p> | <p>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현장속으로’ 코너는 지역의 화제, 미담, 주요 축제의 현장을 주로 다루고</p> | <p>편성 수용</p> |

| 구 분 |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 답변내용 | 비 고 |
|-----|--|---|--------------------|
| | <p>과정을 리포터가 주민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재미있게 진행을 했는데 프로그램을 보면서 조금 욕심을 내자면 시골에서 만든 유익한 오색떡국떡이나 흑미알밤 같은 것을 도시인들에게 판매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본다. 방송이 시골사람들에게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게 판로개척에도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유덕순).</p> | <p>있다. 방송된 <오색빛깔 가래떡>은 설을 앞두고 설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아이템으로 방송 후 문의가 많이 와서 연락처를 시청자들에게 알려주었다. 지역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농가들에게 도움이 됐으리라 믿는다. 이런 아이템을 더욱 발굴하도록 하겠다.</p> | |
| 교양 | <p>생방송 아침이 좋다(1/22)에 서천 제일의 명산인 천방산을 소개하였다. 서천지역 산악회 회원들과 리포터가 함께 산행을 하였는데 산악회원 인터뷰가 특정인에게 집중되지 않고 골고루 나와 인터뷰 안배가 잘 이루어져 보기 좋았다. 중간에 뜬금없이 '겨울철 산행준비'가 삽입되어 전체 흐름을 끊는 듯해 아쉬웠다. 시청자에게 천방산 등반 소요시간, 출발지, 도착지 등 제공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CG 처리하여 영상으로 별도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유덕순).</p> | <p>아침이 좋다는 <수요산행>코너는 지역 둘레산들의 아름다운 풍광을 제작진이 고생하면서 촬영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겨울철 산행준비'는 겨울 산 산행에는 안전을 위해 장비준비가 철저해야 하기에 삽입하였다. 그리고 산행코스, 소요시간은 자막으로 처리하고 있다.</p> | <p>편성 의견참고</p> |
| 교양 | <p>대전MBC가 창사 50주년을 맞아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는 PR을 보았다. 시간대별로 자주 PR을 내보내니 시청자들의 관심도 높아질 것이라고 본다. 뿌듯하다. 흙 2부작, 백제 5부작 등은 무척 기대가 된다. 문화의 향기를 높일 피카소 작품 전시회와 뮤지컬 캣츠도 잘 유치해 지역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기를 기대한다. 모쪼록 준비하고 있는 창사 50주년 특집과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잘 치러 대전MBC의 이미지를 한 단계 더 높게 구축해주길 바란다(한찬희).</p> | <p>대전MBC 창사 50주년을 맞아 준비하고 있는 특집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지역민들에게 선 보이겠다. 더불어 피카소 작품 전시회 등의 행사도 만전을 기하겠다,</p> | <p>편성 수용</p> |
| 교양 | <p>허참 토크 앤 조이(1/11)에 시인 장석주씨가 출연하였다. 3만권이라는 책을 갖고 있는 장서가인 만큼 독서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다. 옥의 티라고 할까 출연자 배경 세트</p> | <p>좋은 지적에 감사하다. 장서가이자 시인인 '장석주'가 출연하면서 배경세트의 책까지 더 꼼꼼이 챙겼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다. 작</p> | <p>편성 수용</p> |

| 구 분 |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 답변내용 | 비 고 |
|-----|--|---|------------|
| | 의 서가에 꽂혀 있는 책이 시인과 전혀 관계 없는 충남경찰사, 대덕군지 등이었다. 세트에도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김영광). | 은 디테일도 신경을 쓰겠다. 출연자 배경 서가는 새롭게 정리했다. | |
| 교양 | 토크 앤 조이 타이틀을 보니 퇴직한 여 아나운서의 영상이 보인다. 시정조치 바란다(김영광). | 토크 앤 조이 타이틀에 퇴직한 여자 아나운서는 나오지 않고 있다. 퇴직 후 바로 타이틀을 수정해서 방송하고 있다. | 편성 반론 |
| 보도 | 뉴스에 '정가정답' 코너가 있어 주의깊게 보았다. 일반 뉴스와는 달리 기자의 멘트가 구어체 형식으로 '~인데요'도 등장한다. 보는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겠지만 일반 뉴스 보다 상당히 된다. 표현방식을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송인덕). | 보다 적합한 표현방식을 고민하겠다. | 보도 의견참고 |
| 보도 | 뉴스 자막이 통일성이 없는 것 같다. 기자마다 다르다. 어떤 뉴스는 제목이 기사 끝날 때까지 유지하고 어떤 뉴스는 잠깐 노출했다가 사라지기도 한다. 자막 등장의 일관성 유지와 제공되는 자막도 타이밍을 맞추어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송인덕). | 자막이 일관성 있게 나가도록 뉴스 PD에 주지시켜 시행에 옮기고 있다. | 보도 수용 |
| 보도 | 전날 뉴스데스크 기사와 그 다음날 뉴스투데이 기사를 비교하였다. 뉴스투데이 15개 아이템이 전날 뉴스데스크 11개 아이템과 동일했다. 앵커 멘트와 자막까지 동일했다. 앵커만 바뀌고 나머지는 동일하다. 반복되는 내용이라도 포맷 변화는 있어야 한다고 본다(송인덕). | 뉴스투데이의 포맷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 보도 의견참고 |
| 보도 | 뉴스 홍보를 하는데 있어 페이스북 등 SNS 활용을 권장해본다. SBS는 페이스북에 주요 뉴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주고 있고 또한 뉴스를 요약해서 제공해 주고 있다. 홈페이지가 수동적이라면 SNS는 적극적이다. 스마트미디어 시대에 SNS 활용을 적극 권장한다(송인덕). | SNS를 포함한 인터넷 홈페이지 채신 등을 준비하고 있다. | 보도 의견참고 |

| 구 분 |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 답변내용 | 비 고 |
|-----------|--|--|--------------------|
| <p>보도</p> | <p>뉴스데스크의 뉴스 흐름을 분석해 보았다. 진행 흐름을 보니 현장취재 리포터물, 단신, 오늘의 이모저모, 날씨, 성금 캠페인 등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었다. 전체 15분에서 17분 정도 로컬뉴스가 진행이 되는데 단신 형태로 나가는 뉴스 중에는 지역에서 볼 때 중요한 뉴스가 포함된다. 뉴스중요도를 점검하여 앞부분에 배치할 것은 과감하게 앞부분에 배치할 것을 주문한다(송인덕).</p> | <p>중요 기사를 스트레이트도 앞에 배치할 수 있도록 편집에 신경쓰겠다.</p> | <p>보도 의견참고</p> |